

축 사

불기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불교사진협회가 개최하는 제20주년 정기회원전과 제9회 청소년불교사진 공모전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불교사진협회는 전국 방방곡곡 사찰을 찾아 우리 불교문화재를 세상에 알리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실천들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것은 불교계 차원에서도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지 1700여년 동안 부처님께서 일체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리의 가르침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앵글에 비춰지는 부처님의 미소가 새롭게 탄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한다는 점에서, 한 장의 사진은 곧 한 명의 포교사와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사진작업은 수많은 고행과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 주제는 사찰전경(寺刹全景)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서(遺緒) 깊은 천년고찰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자비로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진에 담아낸 사찰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신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불교사진협회 회원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불교문화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고,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현대인의 삶 속에 알리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넘치고 향기로운 봄소식과도 같습니다.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여러분!

이제 20여년 성상을 한결같이 전국의 사찰을 누비며 활동해온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기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실시하는 제20회 정기회원전 및 제9회 청소년불교사진 공모전이 성황리에 회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전시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온 불교사진협회 임원진과 회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한국불교사진협회의 무궁한 발전이 사회와 시민의 행복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자 승 합장